

■ 경희대 趙正源 총장

“과학기술은 創學정신인 문화세계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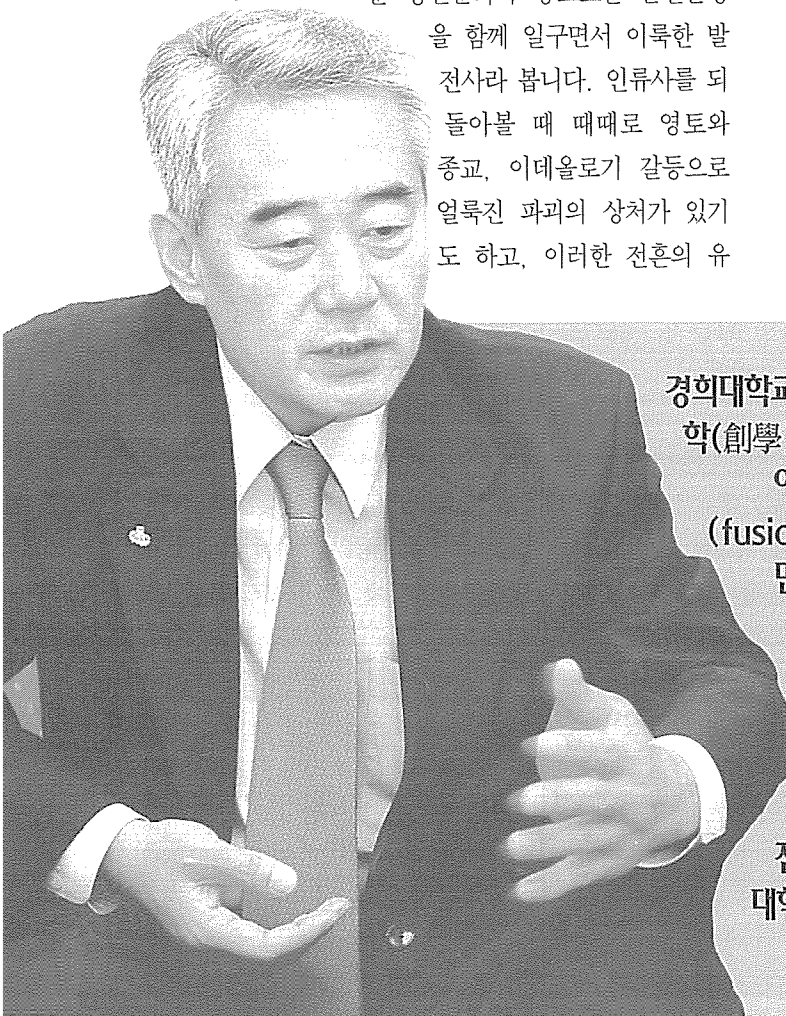
■ 대담 : 李光榮 (전북대 초빙교수 / 본지 편집위원)
■ 일자 : 6월 25일 ■ 장소 : 경희대 총장실

■ 「과학과 기술, 지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특별히 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장님의 과학기술관에 대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과학기술도 시대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름다운 정신문화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함께 일구면서 이룩한 발전사라 봅니다. 인류사를 되돌아볼 때 때때로 영도와 종교,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얼룩진 파괴의 상처가 있기도 하고, 이러한 전혼의 유

산으로 재래식 무기와 화생방 무기 등이 실존하고 있으나 이는 정신문화의 빈곤과 어긋난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에서 비롯되었고, 인류사회 재건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늘 쉽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진전이 없이는 풍요와 여유를 동반하는 인류사회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제3세계 후진국을 중심으로 기아와 질병에 신음하는 세계 시민들이 지구촌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들을 치유하고 처방하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경희대학교의 창학 이념이 ‘문화세계의 창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경희대학교 조정원(趙正源) 총장은 과학기술이 경희대의 창학(創學) 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 정신에 따라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21세기 학문은 융합(fusion)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될 것이라며 과학이 과학만으로 존재할 수 없고 사회학과 인문학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류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진정한 발전을 이룩해 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1996년 말 취임한 조총장은 벨기에 루벤대학에서 통합이론으로 국제정치학 박사를 딴 정치학도로 설립자 조영식(趙永植) 박사의 큰 자제이기도 하다. 교육목표를 전인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에 둔 경희대학교는 지난 봄 개교 52주년(5월 18일)을 맞았다.

■ ■

과학문명은 문화세계 창조에 한 축

맞습니다. 문화세계는 고도의 과학문명과 심오한 정신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복리주의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정신과 풍요로운 물질을 통합시킨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데 최대·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죠. 인류가 인간으로서 보람있는 사회 즉, 인간중심주의 바탕 위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문화세계는 정신문화 보급과 과학문명 발달이 어우러져 인류가 공존·공영할 때의 세계이므로 과학문명의 발달은 문화세계 창조에 양대 축 중 한 축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희대학교는 '비전 2000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 중 의학과 공학계열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 하던데요.

경희대학교의 경우 이공계 계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타 계열에 비해 좀 늦은 감이 있었지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늦었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려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대학다운 대학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 대학이 경쟁력을 갖출 때 연구재원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 대학은 경쟁력을 갖는 학문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결과가 도처에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비전 2000계획'은 경희대학의 현 위상과 강·약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 위상설정과 투자전략 및 실행계획이지요. '비전 2000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식품영양학·공학 등에 생화학·생리학·분자생물학·임상영양학·면역학·미생물학·영양생화학·유전공학·기계공학 등을 접목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학분야의 진전과 함께 생명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한·치·약대 교수들은 물론 동서의학대학원, 동서의학연구소, 생명공학원의 연구원들이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51개국 1백98개교와 자매결연

해외 우수 대학과의 연계 연구에도 눈을 돌려 국내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趙正源 경희대총장(오른쪽)이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과 대담하고 있다.

현재 51개국에 1백98개교가 자매대학으로 지구촌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학부생을 중심으로 1백명 정도가 외국의 자매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국제 감각을 익히면서 선진학문을 수학하고 있지요. 대학원생들은 한의과 대학과 동서의학대학원, 생명공학원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중국 등지로 공동연구와 박사학위 논문작성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실험을 위해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학분야에서 미국 스탠포드의대, 공학분야에서 일본의 와세다대학과의 협력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뇌 과학과 노화연구·신약과 바이오 칩 개발·의료기기 및 인공지능 개발·환경정화기술 개발·동물 형질전환 및 식물 신품종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이학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반도체 물리학과 화학을 연계하여 정보디스플레이연구소를 설립하고 수출 주력인 반도체 산업의 신 지평을 열기 위해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교육인적자원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삼성전자·하이닉스 등 정부와 재단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그간 이룩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타 대학교수들과 연대해서 신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 경희대학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방병원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희대학교가 일찍부터 우리의 고유한 한방(韓方)의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 분야 인력개발은 물론 학문발전에 큰 공헌을 한 때문일 것입니다. 조장께서는 한방병원 나아가 한의학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1999년부터 '동서협진센터' 운영

요즘 '대체의학' 이니 '제3의 의학' 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장수하게 됨으로써 각종 만성 퇴행성 질병이 있는데다 식생활 환경 등으로 해서 암과 당뇨·심혈관 질환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대의학만으로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봅니다. 현대 서양의학이 갖는 한계성을 우리의 한의학(韓醫學)에서 찾아보는 일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는 의학·치학·약학·한의학·간호학 등 5개 의학을 체계적으로 고루 갖춘 세계 최초이자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일의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이 대체의학과 제3의 의학발전에 세계 어느 대학도 갖지 못한 유리한 점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경희대학교는 앞으로 이런 장점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는 미국 스탠포드의대와 노화 및 통증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2명의 한의대 교수가 스탠포드의대와의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여러 우수 대학이 우리 한의과대와 협동연구를 하는 일에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의 메릴랜드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과도 협동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희의료원이 1999년부터 서양과 한의학을 전공한 의사 분들이 협동해서 진료를 하는 '동·서협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 **최근 들어 과학과 기술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평화와 삶의 질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어 이른바 반과학운동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나아가 과학기술과 인문과학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자로서의 총장님 의견은.**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인류 문화세계의 창조를 실현하는 동인은 역시 정신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물질문명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이러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반과학운동이 전개되는 것은 필연이라 하겠습니다. 학문간 융합개념도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문명의 이기도 되고 달리는 흉기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된 인간배아 복제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의 환경 파괴와 전쟁, 기아와 질병 등 인류가 질곡의 늪에서 벗어나 이상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인류 정신세계를 아름답고 바르게 일구는 인문사회과학의 발전과 자연과학의 융합이 인류발전 역사와 함께 동반하여 전개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모든 학문이 융합하는 특성을 갖게 될 것이므로 과학과 기술학도 인문과 사회과학과 융합하지 않고는 발전해 가지 못할 뿐 아니라 발전의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21세기에는 과학과 사회, 과학과 인문, 나아가 과학과 철학, 과학과 종교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조화있게 발전해 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의미가 있습니다.

■ **대학의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지요.**

대학은 지식인이 아닌 지성인 길러야

과학기술은 베끼는 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국공립대가 사립대와 경쟁하고 국공립대의 커리큘럼이 천편일률적인 현실에서 기초학문이 발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보겠습니다. 특히 학부제 운영으로 해서 기초과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물리학과에 우수한 학생이 몰렸는데 이제는 모든 기초과학이 우수한 전공자를 찾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기초과학 나아가 기초학문 발전을 위해서 학부제 운영에 따른 부작용 방지책과 국립대의 학과를 특화시키는 문제 등을 조속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를 위해 현 제도 아래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지식인이 아니라 지성인을 양성해야 합니다. 지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신지식인'이라는 말을 '신지성인'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과학기술이 시대와 사회에 기여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실제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과학기술에도 경영마인드, 기업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㉞